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도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개역, 여호수아 8:30~35]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조금 내용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치러 가는 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 잘 쳐라”고 말하죠? 다른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건 오로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은혜롭기 그 지없지만 더 은혜받을 말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죠? 장군이 전쟁터에서 막사에 앉아서 성경공부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시키셨습니다. 그런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 성까지 쳤습니다. 아이 성을 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친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비기면 조금 비슷합니다. 인천에 상륙해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옴으로써 적군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죠. 적을 아래 위로 갈라지게 해서 싸우려고 했던 인천상륙작전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을 친 것은 아주 흡사합니다. 이 두 성을 치는 것이 옆구리를 치는 셈입니다. 가나안의 옆구리로 들어와서 장차 남쪽으로 연합군과 싸우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적진의 옆구리로 치고 들어와서 군인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보초를 세우는 일부터 해야죠. 보초를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굉장히 위급한 때입니다. 이제 겨우 인천 부두가에 군인들을 상륙시켜 놓았던 말이에요. 온 천지가 적군이고 적진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후사방에 적이 쫓아 달려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 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라고 합니다. 이 에발 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인데 아이 성에서 약 30Km 조금 넘는 지역입니다. 이 거리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다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혼자서 가면 하루만에 갈 수 있을 겁니다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려면 적어도 2,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 적이 깔린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버리고 있는 그 속에서 갑자기 전투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한 30여Km 떨어진 세겜으로 가서 양쪽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적들이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요? 저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작대기와 돌맹이 다섯 개를 들고 갔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지금 나를 개로 알고 오느냐고 얘기를 하지요? 개 잡으러 갈 때 막대기를 들고 가나 봐요. 골리앗이 기분이 아마 대단히 나빴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조그만 녀석이 작대기로 개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온단 말이나?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랬는데,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런지 모릅니다. 저것들이 도대체 우리들이 이려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단 말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동해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기록했고 35절 제일 끝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율법책을 전부 낭독을 했더랍니다.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지금 적과 싸울 준비를 정신 없이 해야 될 판국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을 했단?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부흥회쯤 될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대전투를 앞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성경공부 하는데 올라갔더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었는데,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군대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함입니까?” 그 말은 내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라고 물었죠. 그 군대장관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말을 바꾸면 ‘난 하나님 편이다’입니다.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난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득이 될까 안될까? 늘 이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네 편도 적군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다 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던 일,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일, 여리고 성을 쳤던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것이 무엇이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것이냐? 이 두 산이 갈라진 것처럼 이 산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적들이 잔뜩 버르고 있지만 저 적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 적들에 의해서 좌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 형편이나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시선을 너무나 많이 둡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기 전에 주변 형편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여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지요? 왜 빠졌습니까? 무얼 보고요? '물결을 보고'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 때문에 아마 물결이 거칠었나 봐요.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원인은 바람입니다. 무엇만 보고 갔으면 괜찮았을 건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바람이 들이치는데 그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안 빠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언합니다. 다 뜯어말립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본인도 압니다. 지금 이 길을 계속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있다는 것은 압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길이란 걸 알면서도 왜 갑니까? 차라리 가지 말고 밖으로 돌면서 열심히 전도여행을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는지 모르지만 이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마땅히 자기가 체포되고 고난당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습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리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체포되고 이유없이 몇 년간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죠. 그 것을 사도 바울이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뻔히 그걸 알면서 왜 갔느냐 말이죠?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애를 썼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가져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도 갔습시다. 달리 말하면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었습시다.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차고 나가는 용기있는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것은 "고3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좀 미뤄두라 그러죠? 대학 갈 때까지만 좀 미뤄두라고 그러습시다. 맞는 것 같죠? 아니, 맞습시다. 가장 현명한 길은 아니지만 말입시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렸을 것입니다. 좀 미뤄두라고요. 언제까지요?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어느 정도 평정할 때까지는 좀 미뤄두라고 누군가가 권했을지도 모릅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시다. 그대로 시행을 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먼저 했습시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시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지금 시국이 하도 급하니까 자기 열심히,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시다. 보통 이럴 때 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할 때까지만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대학가거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니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거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든, 이사장이 되거나 장군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교회로 막 인도하게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심지어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요. 내가 이 아이들만 잘 키워놓고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클 동안만 잠시 좀... 이런 방식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맞습시다.

그럼에도 이 길은 그렇게 현명한 길은 아닙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신앙생활에는 역할분담이란 없습시다. 특별히 "야~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기도는 누가 하고요? 기도는 엄마가 열심히 할 터이니. 새벽기도 열심히 갈 테니까 너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 새벽기도가 언제까지 열심히요?

입시날까지요.

맞습시다. 입시날까지. 확인하러 멀리 갈 필요 없습시다. 새벽기도 오실 때 이쪽으로 들어와 보면 확실히 알아요. 입시철이 가까워지면 이쪽에 차가 차츰차츰 늘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월쯤 되면 바글바글해서 길가에 차 댈 자리가 없습시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대도 없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 쪽으로 가

면 복잡한 곳이 한 군데 있죠? 팔공산이던가요? 잣바위도 그런 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방식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출세해서, 돈 많이 벌 때까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런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도 못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요.

시급한 일을 많이 두고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아라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먼저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은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할 때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 가정, 학교 가릴 것 없이 잘 해야 합니다. 일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500명이 있는 학교에 일등은 몇 명 나오니까? 한 명 뿐입니다. 천명 있는 학교의 일등은 몇 명입니까? 두 명 아니에요? 여전히 한 명 뿐입니다. 일등은 어떻게 해도 한명밖에 없어요. 죽어도 일등해야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꼴찌를 했느냐 일등을 했느냐? 등수 따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일등 안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2등은 몇 사람 나오죠? 여전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살펴봐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꼴찌를 했다? 그러면 칭찬하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꼴찌를 하느냐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어서 잘 압니다. 열심히 해도 꼴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지 성적표 받아 오는 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꼴찌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충격이 클까 싶어서 참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보고 그 뜻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경우 있죠? 요즘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네요. “내 버려둬! 이대로 살다가...” 끝까지 말 안 해도 아시죠? ‘내 버려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막 가는 판에 표준말로 하겠어요? ‘내비도!’ 이러더라구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먹는 거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을 거야. 이런 짐승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도 살아가는 방식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도우시다, 선교를 합시다, 이러면 뒤에서 지금 내 먹고살기도 바쁜데 돈이 어디 있어요?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죠. 이런 건 인간중심, 혹은 자기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나 중심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해야 합시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 것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나오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뭐죠?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일도 하기 힘든데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느냐? 말이 좀 거칩니까? 짐승이 꼭 그렇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났죠.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민족에게 짓밟히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다급한 시기에 전쟁을 잠시 멈추어 놓고 태평스럽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여호수아 자신

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명한 대로란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란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자기의 전임자인 모세가 명했던 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가 기록해준 대로, 명령한 그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혹 주무시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허언 수업을 기르고 도사 지팡이 하나 짚고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옛날엔 그럴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경말씀, 성경중심이라 말할 때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뜻도 되지만 강조점은 '배우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라 혹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경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그래서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넓히자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쯤 떼나요?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어를 떼는 것과 성경 한번 떼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성경책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내 몇 독 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 아나요? 골치 아픈 영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뚫다. 그러면 다 아나요? 아뇨. 몇 번이나 읽으면 다 알게 될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한 과목을 떼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그걸 읽으며 외우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외우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50독을 하니가 성경이 보이고 100독을 하니가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런 광고를 많이 하더니 요즘 뜸하네요. 성경은 읽어도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쪽 읽어가 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 머리가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왜 주셨을까요?

쓰라고요.

주로 어디에 쓰지요? 해당하는 데요?

못 박는데.

맞아요. 머리 가지고 못 박는데 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건 안되겠고, 축구하면서 해당하는데 쓰는 것은 그래도 좀 낫네요. 정말 그런데만 쓸 겁니까? 성경말씀 펴놓고 그냥 주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성경을 과외공부처럼 배웠다는 분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제가 십여년 전에 과외공부 합시다 하고 글을 썼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는 물론이고 중학생 정도면 수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성경인데요 성경과외는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성경을 과외공부 하듯이 배운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흥교회 있을 때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젠 제 자랑입니다,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처음

에 조금 가르쳐 놓았더니 이 녀석들이 재미를 붙여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성경만 공부하는 수련회를 하지는 겁니다. 전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다를까 “선생님,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같은 수련회를 하면 안될까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고 했죠. 저 혼자서 고등학생들 몇십명 데리고 2박 3일 동안 성경책 한권만 들고 공부하기를 매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애들아, 학교 때문에 빠지는 애들이 가끔 있으니까 개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보충 수업하자” “그럼시다” 방학 중 자율학습이 보통 6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면 마치고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낮에는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고 저녁에 교회와서 보통 3시간씩 성경공부만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와서 “이 교회 아이들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니깐 무슨 아이들이 성경공부하러 교회를 다 옵니까? 이러더라구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우리 아이들은 좀 그래요.” 한 3년을 그렇게 버티고 간 아이들이 서울 가서도 꼭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촌놈들이 서울 가서 그 교회 휘어잡고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서울에 가서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은 포항대흥교회 출신들이 내리다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간 아이들 중에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들이 많아요. 왜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성경공부하고 교회생활 충실히 한 아이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올라가서 서울 애들을 움켜쥐고 살지요.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선배들이 1학년 들어왔다고 붙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가르쳐 보니까 정말 뜻밖이더라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한 얘기가 “어떻게 된 게 올해는 4학년 같은 1학년이 들어왔다.”는 말이 다 나왔을까요? 1학년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 선배같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런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성경 열심히 익히고 간 아이들이 아마 나중에는 정말 멋진 일꾼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엉뚱한 대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가서 엉뚱한 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는다면 누구 말따파나 죽 썰서 남 준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라도 대학가면 완전히 애가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SFC수련회를 참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어렵겠지만 수련회라면 보통 7박 8일이나 6박 7일입니다. 주일이 끼면 7박 8일이 되고 주일 안 끼우려고 발버둥치면 6박 7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무지막지한 수련회예요. 얼마나 잠이 모자랐으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잠 때문에 터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수련회 하면 보통 표제가 있지요. 20년도 훨씬 넘은 얘깁니다. 저쪽 진주 어느 지방인데 수련회 표제가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얘기가 잘 안되는데 어느 성경본문일까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에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니 입이 정하여졌더라. 그리고 난 후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왔던 그 본문에서 표제를 따와서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 이런 표제로 수련회를 했는데 대회장을 맡은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대회장을 맡아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날 표제 제창을 하는데 대회장이 먼저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따라하죠. 그래서 먼저 외쳤습니다. ‘주의 입술(숯불이 아니고)을 내 입술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수련회 기간동안 실수를 세 번 했는데 제일 걸작은 하나 더 있습니다. 설교 직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자기는 자리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설교를 했으면 됐을텐데 통성기도가 너무 길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보니까 엎어져 자더랍니다. 그래서 툭툭 깨워가지고 손짓만 했는데 열결에 이 대회장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거죠.

문제는 그렇게 잠 못 자면서도 오로지 성경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FC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배우는 일에 노력하고 있는지. 특별히 학교공부 열심히 해야 할 그 때가 여전히 성경배우기가 좋은 때입니다. 학교

공부로 바쁜 그 때가 아니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때가 달리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너무 여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산이 마주 보고 서 있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다 낭독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모습이에요? 전교인 야외예배 나간 모습이 아닐까 싶은 느낌도 좀 듭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곧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숯불을 하나만 집어서 밖에 내 놓아두면 금방 꺼져 버립니다. 꺼져갈 듯 싶은 숯불을 다시 갔다 넣어 놓으면 피어납니다. 모여 있을 때 아주 화력이 센 불이 되는 것이죠. 따로 떼어두면 어느새 식어 버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사는 법을 배우고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가정과 사회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열심히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SFC 헌신예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가서 게으름 피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등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꼴찌를 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 했음에도 꼴찌를 했다? 그건 본인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죠? 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공부도 나중에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분절되어서 얇은 게 더러 있대요. 두꺼운 성경책은 못 넣고 다녀도 얇은 성경책은 넣어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세요. 쉬는 시간에만 읽어도 꽤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얼마씩 분량을 꼭 정해 놓고 읽으세요.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적극 참석하고, 참석했더니 놀기만 하던데요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경 읽고 공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모처럼 오늘 학교 일찍 마쳤다,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오락실이래요. 야! 모처럼 시간 좀 났다, 성경 좀 공부하자, 이러면 너무 꿈같은 얘기입니까? 꿈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 모처럼 시간 좀 생겼는데 공부 좀 하면 안될까요?” 이런 부탁 받고 제가 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석날 성경공부 한다고 모였다가 제가 집에 가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요? 추석날 고향 안 가고 여기 남은 친구들 있길래 모여서 공부 잘 했죠. 추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시간만 나면 공부합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운 대로,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모르고 설령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떠나는 아이들에게 제가 종종 들려주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거지와 왕자라는 아이들 동화 아시죠? 왕자를 아주 닮은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둘이 바뀌어 버렸어요.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장난치다가 그만 떠밀려 가지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왕자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왕자는 거지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가 거지 소굴에 붙들려 가서 거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거지가 아니

고 왕자다. 왕자란 말이야. 네 이놈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놈 아니야, 이거” 그래서 미쳤다고 두들겨 맞고 갇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도망을칩니다. 도망쳐 나와 가지고도 행색은 거지면서도 말은 왕자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사가 “어린 것이 저렇게 정신이 가 버려서 참 안 됐다. 나라도 좀 지켜줘야겠구나” 하고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도 미친 짓 해야 되지요. 아이가 미친 짓을 합니다. “여봐라” 하면 멀쩡한 기사가 “예” 하고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왕자 대접을 해 주는 거죠. 왕자 대접을 해 주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아이가 미친 게 아니고 진짜 왕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궁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렵듯이 하게 되지요. 거지가 자기 대신 매 맞는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중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하면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사가 “아, 이 아이가 미친 게 아니다. 어쩌면 진짜 왕자일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이 아이가 왕자의 자리를 찾도록 노력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합니다.

결국 이 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의 자리를 되찾아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시고 궁중에 있던 진짜 거지가 왕으로 등극하려는 그 순간에 거지 왕자가 간신히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졸지에 왕자가 둘이 됐습니다. 옥새를 찾는 것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옥새가 없어져서 오래도록 못 찾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어온 이 거지가 옥새를 찾아냅니다. 가짜 왕자가 호두 까먹을 때 쓸려고 다른 데 감추어 놓았더라고요. 옥새를 찾느라고 난리가 나도 가짜 왕자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는 거죠. 밖으로 나갔다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거지 왕자가 결국은 자기 자리로 찾아갑니다. 아이들 읽는 동화예요. 저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이 거지 왕자는 어떤 환경에 갔다 버려두어도 생각은 왕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믿어줘도 자기는 왕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SFC운동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모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을 잡아 먹으려고 버르는 이리떼 같은 이상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음란하고 말초적인 세파가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산다라는 각오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